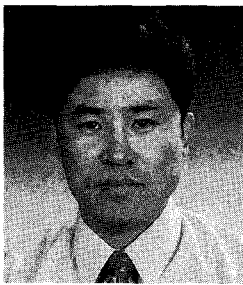


육계업의 수익성 향상 방안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생산에 주력을...



이 현 덕
(대상사료 양계PM)

육계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최근 육계 사육 성적을 보면 사료요구율이 1.60~1.80대로 이미 상당히 평준화되고 있다.

산업이 어려울수록 우리 사양가들은 품질이 우수한 계육을 생산하여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좋은 품질의 계육 생산과, 우수한 사육성적을 만들기 위한 몇가지 현장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병아리 입추에서 출하시까지 반드시 도태와 폐사 현황을 동별로 기록, 분석한다.

여러 파스를 기록해 두면 순간순간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수익성을 향상 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 쓸 수 있다.

2) 병아리 입추시에 무작위로 최소 10수 이

상의 병아리로부터 채혈을(주변 협조 요청) 실시하여 뉴캐슬, 전염성기관지염, 감보로 등 바이러스성 질병의 역가를 의뢰하여 추후 백신 프로그램 일정 조정에 참고하기 바란다. 더불어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검사를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사육을 하게 되면 사육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3) 적절한 백신을 실시하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듯 싶다.

가급적 50~100 μ m 사이의 노즐 입자로 분무 백신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분무 백신이 용이치 않다면 백신 당일 음수량을 추정하여 최소 2시간 단위로 섭취할수 있는 물량에 권장 희석 배수에 의거해 최소 4~5시간 동안 음수로 실시 한다.(항생제나 수용성 영양제도 동일 방법으로 실시 권장)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계육 시세가 낮아지면 백신을 하지않는 사양가를 볼수 있다. 반드시 최소한의 백신을 실시하기 바란다. 시판되고 있는 백신을 보면 분무 전용이 있는데 이것을 음수 백신으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백신의 특성에 맞는 백신방법으로 실시하기 바란다.

4) 일반적으로 특정 항생제를 고집하고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불안정하다고 느낄때는 반드시 약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여 약제를 선정하게 되면 항생제 오남용을 막을수 있음은 물론 사육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

5) 농장 방역 위생에 만전을 기하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이(차량, 사람 등) 해당되겠지만, 특히 출하시 생계차에 최고의 관심을 집중해

주길 바란다. 바이러스, 세균, 원충에 강한 소독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육계 출하 경향을 보면 1일 전량 출하가 싶지 않기 때문에 1차 출하후 남아있는 계군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6) 계사내 급이시설중 체인 급이기 신규 시설은 지양하고, 급이량을 조절할 수 있는 팬급이기 위주로 교체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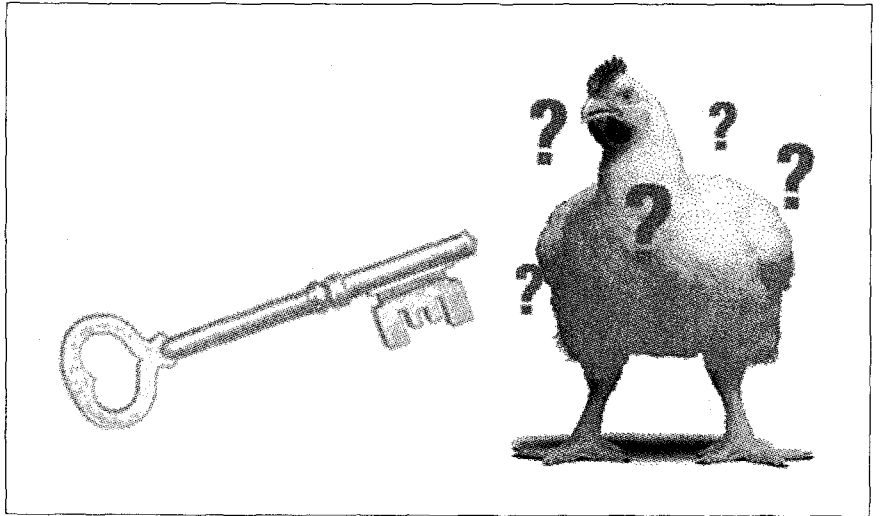
모체 이행 항체가 낮아지고 분변량이 많아지는 3주령이후 사료 오염으로 인해 폐사율이 증가하고, 증체량이 저하되며, 항생제 남용의 원인이 됨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7) 계사 길이가 길다고 느낀다면 계사를 3등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입추때 부터 병아리 수수를 동일하게 나누어 사육함으로써 균일도를 높일 수 있고, 출하시 닭들이 몰려서 압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공기의 흐름만 막지 않는 선에서 간단하게 그물망으로 나누어 막을 수 있다.

8) 1.45~1.65kg로 출하하는 국내 시장을 감



안해 보면 3~5일령까지는 메탈 등을 별도 점등 라인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초기에 층아리 없이 건강한 계군을 만들어 증체량과 출하일수를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생산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

9) 내 농장의 동서남북 위치를 감안하여 햇볕과 바람을 차단해 주길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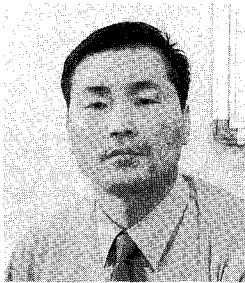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약추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시켜 영양소의 이용성을 높을 수 있다.

10) 마지막으로 여분의 깔짚을 확보하여 4주령 이후에 급수기 밑에 보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농장에서부터 깨끗하고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할때 비로소 육계 산업은 경쟁력을 높혀 성장해 나아갈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내 농장 현황에 맞춰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개선해 나가면 과거와 현재보다 우수한 사육성적을 만들어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신한다. **양계**

빠르게 변화되는 환경에 발 맞추어야...



주 양 돈
(흥성사료 양계 PM//차장)

적극적인 방법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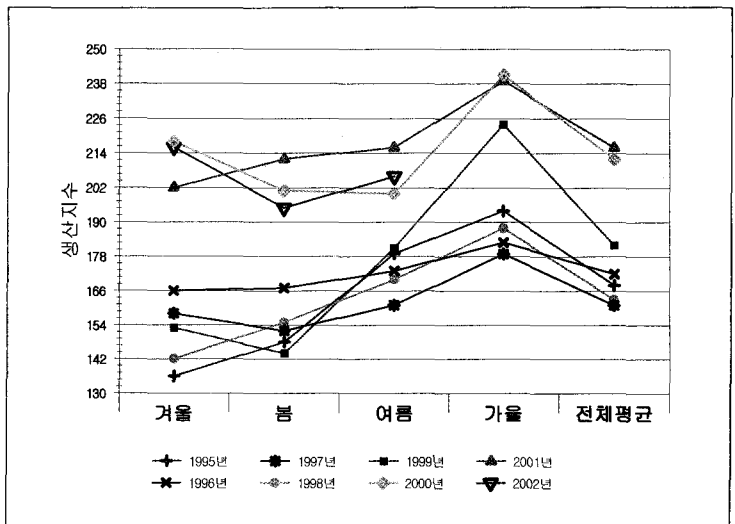
그림 1에 나타난 계절별 성적을 볼 때 국내 육계의 생산성은 가을철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나빠져서 봄철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환경적인 원인과 질병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최 근 몇 년동안 국내 육계의 생산성은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1은 과거 7년동안 계절별로 생산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연간 평균 성적을 볼때 1999년까지의 성적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 이후 성적은 무려 생산지수를 30포인트 이상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내 육계산업이 계절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양시설 현대화, 사양기술의 향상, 끊임없는 육종 그리고 사료의 품질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계절이나 환경에 따라 그리고 사양가의 기술 수준에 따른 생산성 변이가 심한 편이다. 수익성 향상을 위한 보다

1) 환경적 원인

겨울철 환경을 좌우하는 것은 환기이다. 겨울철 환기는 계사내 유해가스를 배출하는것



〈그림1〉 과거 7년동안 계절별 육계 생산지수

도 중요하지만 계사내의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보통의 농장에서 연료비 걱정 때문에 겨울철 환기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너무 갑작스런 환기로 닭들이 호흡기 질병에 노출되지만 앓는다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여 계사내의 유해가스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연료비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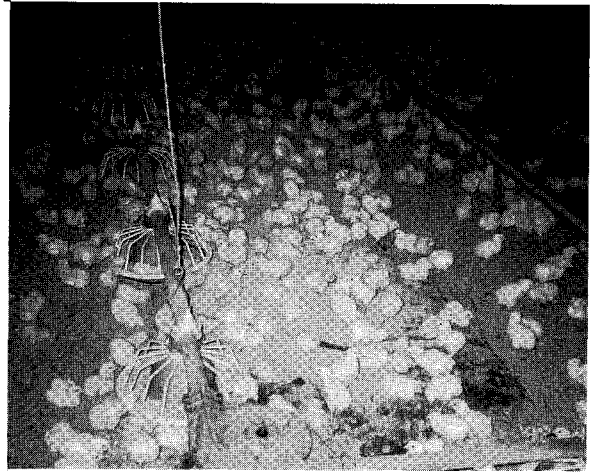
2) 질병적 원인

겨울철은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가장 많은 계절이다. 겨울철에 생산성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이러스성 질병들에 의한 피해 때문이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2000년부터 겨울철과 가을철의 생산성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이유는 부화장과 농장 그리고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에 대한 철저한 백신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질병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소독과 백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사료의 관리

농장에서 사료를 구입할 때 사료 가격을 싸게 구입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에 비하여 사료의 소비량을 줄이려는 노력은 덜 한 것 같다.

- 1) 사료 급이기 관리: 사료 급이기를 닭의 성장에 따라 정확하게 맞추어 주면서 닭이 섭취하면서 급이기 밖으로 허실되는 양을 줄여 준다.
- 2) 펠렛사료의 경도 관리: 펠렛은 가루가 없어야 된다는 인식은 자칫 사료를 파헤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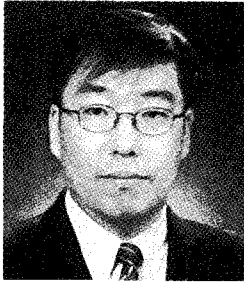


만들 수 있다. 펠렛이 필요이상 경도가 높다면 사료를 파헤치거나, 파헤치지 않아도 섭취하는데 두배 이상의 에너지가 소비된다. 적당한 펠렛의 강도는 가루가 5-10% 정도 포함된 사료이다.

- 3) 사료의 배송: 이제 막 입추를 한 계사가 2개인 농장에서 각자의 빈에 사료를 저장하기 위해 사료를 2대를 주문했다면 한 계사내에서 1대의 사료를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일정도가 된다. 하지만 사료를 1대만 주문해서 두 곳으로 나누어 저장한다면 사료를 소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7일정도가 된다. 이는 닭들이 얼마나 신선한 사료를 섭취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닭에게 보다 신선한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육계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므로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농장과 사료회사, 수의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조언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관리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 **양계**

소홀하기 쉬운 기록관리로 최고의 효과 기대



연 제 영
(주)CKF개발팀장

요즘과 같은 육계업의 불황기에 조금이라도 양축가의 손해를 절감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육환경 및 관리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최선의 대책이라 할 수 있겠다. 최우선으로 번거롭지만 철저한 사양기록을 하여야 한다.

사양기록부를 매일 철저히 기록하면 항상 성장단계의 이상유무 확인이 가능하므로 질병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손해를 최소로 절감할 수 있으며 사육환경 등의 변이사항을 기록하여 사후에라도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를 밝혀 다시 반복하여 실수하는 일을 사전에 제거할 수가 있다.

기록 내용에는 사료효율과 증체량뿐만 아니라 분변의 색깔과 형태 등도 관찰, 기록하면 질병이나 음수문제, 사료문제 등을 조기에 대처할 수 있으며 급수온도라든가 계사내 온도

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한다면 저절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양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입추후 출하시까지 사육만 할 것이 아니라 각 성장단계별 온도관리, 습도관리 및 환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기관리는 온도 및 습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중요한 사양관리 중목이다.

온도관리는 입추시 32℃ 내외의 따뜻한 온도가, 주령이 경과할수록 온도범위는 넓어져 성계가 되면 18~21℃에서 가장 좋은 성장을 보인다.

습도는 50~70%가 최적의 습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습도가 높으면 깔짚상태가 나빠져 유해가스 발생이 촉진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유해가스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습도조절을 하여 암모니아 가스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사의 환경을 조절하는 것은 어느 한 항목만을 잘 조절하여 준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므로 모든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관리하여야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양계**